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I)
현장 간담회(6.18)

모두 발언

2026. 6. 1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융권 AX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AI가 모든 산업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AI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이 AI를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금융권이 쌓은 AI 경험은

금융산업 뿐 아니라 실물산업 전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는

AI 에이전트로 상품 검색·추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국내 카드사들도 비슷한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은 정부가 직접 AI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OECD는 AI리스크에 맞는 감독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와 경쟁하려면

금융권 AX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II. 금융권 AX 도입 필요성

금융권 AX는 우리 금융사를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만들 기회입니다.

AI를 먼저 받아들인 금융사가
비용, 속도, 서비스 모든 면에서 앞서나갈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은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형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첫째, "생산 금융"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분석하면
금융사의 의사결정 역량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실물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공급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포용 금융"입니다.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이 부족해 문턱에 걸렸던 분들에게 새 기회를 열어주고,
AI 에이전트는 그동안 자산가 위주였던 맞춤형 자산관리를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신뢰 금융”입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보험사기 같은
금융범죄 징후를 정밀하게 잡아내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여러 AI 에이전트가 함께
잠재 리스크를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III. 국내 금융권 AI 추진 방향

AI는 최근 금융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기술이 AI와 합쳐지면서,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까지 등장했습니다.

* 챗봇처럼 답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
직접 실행까지 하는 AI

고성능 AI는 사람이 찾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짧은 시간에 찾아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알던 금융의 모습이
근본부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AI 시대의 금융은 기존 금융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를 옛 틀에 끼워 맞추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첫째, 새 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합니다.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둘째,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사가 해외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AI는 데이터 기반의 일관된 판단으로
사람의 실수를 줄여주지만,
쏟림 현상이나 사이버 리스크 같은 AI 특유의 위험은
그 속도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IV.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과제

AI 시대를 준비하려면

우리 금융권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① 먼저, 기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긴급히 완화하고,
AI 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나아가 업권별 금융규율 전반도
AI에 맞게 짚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② 다음으로, AI 행위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7대 원칙'을 담아
금융사들이 AI를 활용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AI와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이드라인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③ 또한, AI 전용 감독방안을 갖추겠습니다.

AI의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④ 이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V. 맺음말씀

AX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오늘 나눠주실 추진과제와 아이디어,
현장의 목소리는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 금융권 AX를 위한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세부 과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